

# 데스크시각

오주승



한때 '쇼를 하라'라는 광고가 유행했었다. 새 대통령 취임을 불과 5일 앞두고 새삼이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오렌지' 발음에서 비롯된 영어교육 논쟁이 세상을 한바탕 시끄럽게 한 데 이어, 급기야 '호남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8월 10일, 한나라당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일지 모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호남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모태가 된 민정당부터 26년을 이어온 한나라당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었다.

## 지역주요 현안 용도 폐기

강 대표는 호남인들의 사과를 구한 데 이어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동서 균형발전이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인해 발굴에서 (호남에) 차별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집권당으로서 개발과 인사 측면에서 호남을 소외시킨데 대해 소극적이지만 사과를 한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광주 망월동(5·18) 묘지를 방문해 소나 하는 일은 앞으로 없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품어주기 바란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강 대표가 호남인들에게 사과하고 용서

# 차라리 5·18묘지에서 쇼를 하라

를 빈 것을 닦고 싶지 않다. 문제는 강 대표의 사과가 쇼의 말대로 '망월동 묘지에서의 한낱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라면 이명박 당선인도 못지 않다. 이 당선인은 선거 운동 때 "호남인들은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산업화의 혜택은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되면 (호남에) 기업과 관광단지가 들어오도록 인프라를 깔겠다"며 장밋빛 공약을 제시했었다.

선거철에 쏟아진 정치인들의 말을 믿는 순진한 한국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

나 국정 최고책임자의 과거 발언이자, 여당으로 격상된 정당 대표의 사과라면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돌아가는 판이 그게 아니다. 지금 호남 사람들의 가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인수위가 쏟아낸 차기 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들은 후 순위로 밀려나거나 용도폐기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광주 미래를 결정짓는 문화수도사업은 조성위 폐지와 사업 축소 위기에 몰렸으며, 광양항 개발은 '과잉 투자의 전형적 사례'라는 모욕을 당했

다. 무안기업도시나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도 마찬가지다.

정부 인사를 둘러싼 호남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하다. 맹목적인 고향 감싸기가 아니다. 과거 수십년간 계속됐던 소외 인사에 대한 분노적 불만이다. 청와대 수석 인사에 호남 출신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작이었다. 장관직에 오른 호남 출신 3명은 구색맞추기 수준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사정대인은 영남 일색으로 속속 교체되고 있다. 출신지라면 보면 유신과 군사정권시절 익숙한 진영으로의 회

귀다. 정부 인사의 특징인맥 관중은 비단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당선자가 장로로 있는 교회와 출신 지역·학교를 빚댄 '신 SKY(소망교회-고려대-영남 출신)'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란 신조어가 새 정부의 첫 인사를 조롱하고 있다.

## "고소영을 아시나요"

호남 출신들은 솔직히 말해 찬밥 신세가 됐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말이 일반적인 정서다. 박정희 시대 '겨울공화국'이 연상된다는 말이 어설피 아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원죄(?) 때문에 고향을 숨기거나 본적지를 옮기고, 취업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우울한 기억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현 상황은 이 당선인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동서 모두에서 지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이나 '화합과 변화' '실용'이라는 새 정부의 지향점과도 맞닿는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개발시대 이후 한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해왔던 '영남 우위'의 음습함과 호남인들의 평균적 삶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영남 패권주의'의 일 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칠까.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 시설

## 무안공항 시스템·시설 국제공항 부끄럽다

무안공항이 지난 16일로 개항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8일 개항한 무안공항은 국제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인 70%에 달하는 등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개항 초기 이용객이 적어 적자공항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 불편한 입·출국 시스템과 부족한 편의시설이 개선돼야 한다. 무안공항은 공공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인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승객이 몰릴 경우 화장실 밖까지 줄을 서야 하는 민망한 모습은 국제공항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1층 도착홀의 수하물 컨베이어는 10년 전 기준에 따라 설계돼 대형기가 취항하는 성수기에는 승객들이 짐을 찾는 데 보통 1~2시간씩, 많게는 3시간

을 허비할 때도 있다. 이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제공항의 기본 요건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업무를 광주공항 국제선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광주공항 국제선과 시간이 겹칠 경우 국제항공편을 취항시킬 수 없는 것이다. 활주로 연장도 시급한 과제다.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현재 2천800m에서 3천200m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이 하루빨리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위상에 맞는 시설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 새 정부 각료 후보 '호남 안배' 호도말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3개 부처 장관 후보와 국무위원 후보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내각이 선을 보인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첫 각료들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다.

각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역안배 논리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각료 후보 15명의 출신지를 영남 4명, 수도권과 충청, 호남 3명, 강원 2명, 이북 1명 등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와는 달리 출신지역 등을 안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지에 불과하다. 인수위는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후보를 전북 전주 출신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유 후보 스스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서울 충청로'라고 밝혀 왔고 여론 언론들도 최근 내정 사실을 보도하면서 서울 출신으로 분류했다.

인수위는 아버지의 본적을 기준으로 했다 설명했지만 구차스럽게 짝이 없다. 유 후보 아버지의 고향은 충남 서산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때 전주로 피란을 가 유 후보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런 유 후보를 호남 출신으로 발표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각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역안배 논리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각료 후보 15명의 출신지를 영남 4명, 수도권과 충청, 호남 3명, 강원 2명, 이북 1명 등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와는 달리 출신지역 등을 안배했다는 것이다.

인사 소외와 현안사업 축소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은 팽배하다. '이명박 정부에 광주·전남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현실을 외면한 채 출신지를 '세탁'하면서까지 호남을 배려했다고 호도해서는 새 정부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이다.

# 은펜클럽

김창균



인터뷰이 물고 온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 영어 격차)'가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더욱이 거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영어 사용 수준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경제회생과 미래 청사진을 위해 '영어 교육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글로벌 마인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문법과 독해 위주가 아닌 실용영어로의 전환이 급선무이다.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기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 콘텐츠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콘텐츠는 우리 문화의 정통성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할 때 그 가치를 지닌다. 크라우스가 "모든 언어는 인간만이 소유한 집단적 독창성의 최고 성과물이며, 살아있는 생명체만큼이나 신성하고 영원한 신비다"라고 표현했듯이, 언어는 그 사회 문화의 정체를 담고 있는 보물이다.

따라서 차원 높은 언어 교육은 '어떻게'의 문제보다는 '무엇을' 이해하고 표현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출발하여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가

## 재만 남은 승례문과 영어 공교육

능을 통해 해당 원어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상징체계이다. '어제'와 '오늘'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개념을 강제로 분절한다. 이렇듯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언어를 통해 재구조화된 것이기에 실제의 세계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말들은 다른 말이나 상황과 연결되어야만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시작해라', '서둘러라', '뉴스 시간이다', '뛰고 있지?' 등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처럼 언어는 언중(言衆)의 삶의 경험, 즉 특정한 문화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므로 언어생활에서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임은 분명하지만

선행되어야 한다. 얼마 전 국보 1호 승례문이 불타다. 역사가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승례문과 같은 문화재는 우리 정체성의 실존이 아닐까 싶다. 위대한 죽을 뒤에는 심오한 상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가 "더 빛을!" 하고 외쳤다가, 퇴계가 매화를 밖으로 내가게 했다가, 니체가 커티를 쳐달라고 부탁했다거나 하는 것처럼.

주체, 애민, 실용을 강조했던 세종인 금을 소재로 한 TV 사극이 한창 시청률을 올리는 시기에 불타 없어진 승례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효율성'과 '실용성'의 위안길로 사라져가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조종(弔鐘)일까,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는 경종(警鐘)일까. <광주 북성중 교사·2007년 3월 수상자>

은펜클럽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잘못 인정하는 학생들 '어른보다 나야'

얼마 전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근처의 쓰레기통에 누군가 불을 질러 화재가 난 뻔한 일이 있었다. 불이나보니 근처 주민들이 긴장했다.

수소로 끝내 길거리에서 심증이 가는 중학생 둘을 만나 "혹시 쓰레기통에 불을 놓았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말도 안된다"며 되레 큰소리 쳤다. 아이들이 의심은 갖지만, 진짜 불을 냈는지 확신이 없었기에 별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런데 잠시후 그 아이들은 내게 다가와

"길거리에서 라이터를 주워서 장난 삼아 불을 켜 봤는데 그게 타면서 연기가 났다"며 시인하는 게 아닌가.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을 시인한 아이들이 더 이상 꾸짖을 수는 없어서 학생들에게 다시는 불장난하지 말 것을 다짐받고 헤어졌다.

잘못을 저지르기는 쉽지만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청소년들이나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학생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주고 싶다.

▲김낙형·광주시 북구 양과동

# 기고

진선기



오는 25일이면 새정부가 탄생한다. 그러나 새정부의 탄생에 흔쾌히 박수를 쳐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18일 이명박 당선인은 사상 초유의 야밤 조각 발표를 강행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이 무산되고, 이명박 당선인이 조각명단 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총선을 겨냥한 이 당선인과 통합민주당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파행출범은 기정사실이 됐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배양 끝 대치는 인사청문회로 이어지게 됐다.

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글을 모를 뿐 다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졌다. 특히 자신의 욕심을 내려 놓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는 칸이 되어서도 웃을 부하들과 똑같이 입었고, 여자와 노획물 분배도 같이 했으며, 잠자리도 먹을 것도 부하들과 똑같이 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몽골군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함은 등용된 인사의 결정이 많은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므로 인해 그 분야의 판이 새롭게 이뤄진다. 더군다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 호남 없는 새 정부... 호남의 분노

호남 민심도 사납다. 새 조각 인사중 호남인물들이 배제된 데 대한 불쾌감, 호남 무시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항우들까지 호남 차별 인사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가만 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거세다.

인사는 그야말로 '만사'다. 과거 수많은 대통령과 정부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사람을 잘못 쓰면 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정부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편파적인 호남차별 인사를 격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기스칸은 사람을 대할 때 4가지를 불문에 붙였다고 한다. 출신을 묻지 않고, 배움을 묻지 않았으며, 남여를 묻지 않았고, 나이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히팅크는 우리나라에 와서 공정하게 학연을 불문하고 재능있는 선수를 객관적으로 선발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다.

정기스칸이 무식해서 글자를 모랐던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민족에게는 문자

도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인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가는 길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그에게 기운을 보내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사람 그 자리에 참 잘 놓았네. 적절한 인사야. 아마 그 분야는 잘 되겠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는 안되는 데? 인사위원들이 뭘 잘 모르는거 아냐. 거기는 앞으로 힘들겠는데?"

과거 선량한 왕들은 백성의 눈이 하늘의 눈이 되고 대중의 귀가 하늘의 귀가 되고 대중의 마음을 모아 국가의 마음이 된다고 했다. 정치의 정당한 다른 것이 아니다. 백성의 몸과 마음을 한데 모으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어머니 마음을 왕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선택한 만큼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서 많은 변수가 있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지역과 인맥, 학맥, 선입견을 뛰어넘어 '큰 정치 큰 인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장례식장 '음식값 회포' 더 이상 안돼

얼마전 사촌 형수가 작고하셔서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됐다. 장례를 다 마치고 장례식장 이용료를 정산하려고 영수증을 받았더니 황당했다. 유족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생수와 과일 대금이 청구돼 있었고 술과 안주값도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다.

장례식장 책임자를 불러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 장례식장 특성상 이런 피해자는 알게 모르게 많을 것 같다. 가족이 불의에 사고로 작고할 경우 황망 중이라 장례

식장이 장난치기 심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장의 수의나 음식값 회포 소식을 많이 접한다. 여기에 아예 쓰지도 않은 물건값, 먹지도 않은 음식값까지 청구한다니 너무 부도덕한 것 아닌가.

장례식장은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모시려는 가족애를 악용해 고인을 담보로 사기성 상행위를 벌이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 無等鼓

올림픽 금메달은 모든 스포츠맨들의 꿈이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들고 기술을 익혀도 딸까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도전이다.

이런 스포츠맨들의 금메달에 버금가는 '골드메달'이라는 게 있다. 미국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인 셈이다. 미국 상하 양원에서 최소 3분 2의 찬

성을 얻어야 자격이 주어질 정도로 심사도 엄격하다.

1790년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최초로 수상한 골드메달은 원래 군인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차츰 과학자, 탐험가, 예술가, 인권운동가 등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300여명이 상을 받았다.

미안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골드메달을 수상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미국 상원 페인스타인의 원 등은 최근 대선 주자인 오바마와 매케인 등 동료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수지 여사에게 골드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작년 12월 하원에서 이

미 400 대 0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상자로 정해질 경우 수지 여사는 윈스턴 처칠, 고향 요한 바오로 2세, 벨스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테레사 수녀, 달리아 라마에 이어 외국인 골드메달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1962년 이후 46년째 이어지고 있

는 미안마 군사정권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군사정부에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수지 여사는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18년 가운데 1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연금 중에도

아당인 '민주주의인민혁명당'을 이끌었고 1990년 5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군부는 결과를 무효화한 뒤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있다.

골드메달 수상이 그녀가 한 평생 민주화를 위해 살면서 받아온 압박과 고통에 다스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싶다. /김우승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 골드메달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사회 2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